

# “한빛원전 공익감사 각하처분 취소하라”

### “부실공사로 잇단 안전사고” 광주·전남 탈핵단체들 감사원 각하 처분 반발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광주·전남 탈핵단체가 영광 한빛원전 안전성에 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탈핵단체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탈핵단체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공식적인 국가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라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을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공동행동’과 회원 등 사

도민 401명을 대표하는 장삼샘(광주 YMCA급남로 관장)씨 등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장을 피고로 하는 ‘한빛원전 공익감사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 결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인격권·생명권·건강권이 침해됐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7월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전체 6개 가동 원전 중)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각하했다.

해당 규정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사단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 주체가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언급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사원 각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로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경우 1994년 원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광주일보 2017년 8월 2일자 1·3면), 원전 핵심설비 및 보호방벽 결함 등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잇따른 점을 거론했다.

전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위험한 핵발전소’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한빛 4호기 건설사인 H건설은 수의계약으로 문제 된 바 있으며, 무허가 콘크리트 공장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원전시공 과정에서) 터빈 부속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자료에는 심지어 폭풍이 불고 있음에도 공기를 단축하려는 안전 측 경제논리로 4호기에 설치될 가압장치 등을 실은 배가 영광 앞바다에 침몰해(설비들이) 바닷물에 빠졌던 사고가 있었다고 적혀 있다.

2014년 이후에는 ▲중기발생기에서 다수의 세관(가나다관 전열관) 균열 등 결함이 잇따랐고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는 철판이 부식되는가 하면 ▲돔 모형의 콘크리트 방호벽 내부에서 빈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원고(청구인)들은 소장에서 “한빛 3·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심각한 결함과 하자 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사업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전 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무 07:27 달맞이 08:51  
해집 18:06 달집 20:13

**촉촉한 겨울비**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온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광주	비온뒤 맑	4/7	보성	비온뒤 맑	3/7
목포	비온뒤 맑	4/4	순천	비온뒤 맑	5/9
여수	비온뒤 맑	6/9	영광	비온뒤 맑	2/3
완도	비온뒤 맑	5/7	진주	비/눈온후 맑	3/5
구례	비온뒤 맑	3/8	군산	비/눈온후 맑	2/4
강진	비온뒤 맑	3/7	남원	비/눈온후 맑	2/6
해남	비온뒤 맑	2/6	흑산도	비온뒤 맑	4/3
장성	비온뒤 맑	3/6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북동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북동	2.0~4.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5~3.0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 눈음: 높음
- 뇌졸중: 높음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49	03:27
여수	21:20	16:03
	04:19	10:49
	16:52	22:52

◇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	☁	☀	☀	☁	☁	☀
-6/5	0/5	-3/5	-3/6	-3/7	1/7	-2/7

### 최근 5년간 10건 발생 설 연휴 교통사고 1위는 광주 이마트 상무점 주변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광주 서구 차평동 이마트 상무점 주변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이재익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 상무점 인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설 연휴에 교통사고 10건이 발생, 18명의 부상자를 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사거리 인근으로, 사고 9건과 부상자 17명을 기록했다. 3위인 부산시 북구 구포동 제일주차장 인근에서는 5년간 교통사고 8건으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5년간 설 연휴에 반경 200m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점은 전국에 모두 44곳으로 집계됐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건, 광주 6건, 부산 5건, 대구·울산 각 3건 등 순이었다.

이재익 의원은 “관련 정보를 충실히 사전 공지하고, 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담양 죽녹원 설 연휴 나들이객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담양군 죽녹원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대나무숲길을 걷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동구 ‘동명동 갈등’ 해결 상생협의회 만든다

주차, 임대료 상승 등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광주 동구 동명동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과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동구는 “주민·상인·마을활동가·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동구는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2주간 동명동에 자리한 상가 13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음식점·주점이 57.4%,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26.8%를 차지했다. 상인의 81.1%는 세입자로 구성됐다. 상인 연령층은 20·30대가 전체 71.8%를 차지하는 등 청년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명동 발전을 위한 개선의제에 대해서

는 ‘주차문제’가 61.2%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문제’ 26.0%, ‘상가임대료 상승문제’ 1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명동 상생발전을 위해서 응답자 83.3%가 상생협의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동구는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보고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 오늘 한차례 비 온 후 강한 바람...체감온도 영하권

이번 주 후반부는 광주·전남에 한차례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다”고 6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도~7도, 낮 최고기온은 3도~9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1~5mm내외. 기상청은 8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전날보다 아침최저기온이 4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영하권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12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오는 1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지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폐지

광주시교육청이 학업 중단 청소년 등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없앤다.

6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1인당 1만 4000원을 징수했던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폐지한다. 시교육청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고졸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초·중졸 검정고시 응시생에겐 같은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올해 제1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4월 13일 시행한다.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교육청 별관 1층에서 이뤄진다.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homedu.gen.go.kr)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화하기로 했다. 초·중졸 검정고시 응시생에겐 같은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올해 제1회 초·중·고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에 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638-3366  
광주지사 010-5655-5678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010-8605-2740